

“젊은이 발길 끊겼어요”... 텅 빈 거리, 자영업자의 한숨

광주 중심상권 붕괴 위기 직면
전남대 후문 공실률 38% 달해
충장로도 26%... 곳곳 임대 광고
전국 최고 인구 유출률 근본원인
정주여건·일자리 체계 마련 시급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긴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요즘은 문닫은 상가가 더 많아요.”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구시청사거리에서 20년째 분식집을 운영 중인 김모(58)씨는 창문 밖으로 텅 빈 거리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때 이곳은 매일 밤 청년들로 북적이며 불야성을 이루던 광주의 대표 변화가였다. 하지만 몇년 전부터 분위기는 빠르게 반전돼갔다. 음악과 웃음소리로 활기를 띠던 거리는 점점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자 상가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김씨의 가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랜 세월 24시간 영업을 고수해 왔지만, 상권이 단절되며 새벽 손님이 줄고, 인건비와 고정비 부담은 커지면서 운영 시간을 대폭 줄이게 됐다. 지금은 오후 9시면 불을 끄고 셔터를 내린다.

김씨는 “예전에는 외지에서 이곳 거리를 찾아오기도 했는데, 요즘은 인근 사무실 직원이나 자영업자들만 드나드는 수준이다”며 “다들 어렵다지만, 이곳만큼 심각한 곳도 드물다. 주변 상인들도 모두 고사 직전이다”고 푸념했다.

주말인 지난달 28일 찾은 동구 충장로의 상황도 녹록지 않았다. 광주의 ‘명동’이라 불리며 수십년간 구도심 상권의 중심축을 지켜온 이곳에도 ‘임대 문의’ 문구가 붙은 상점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메인 거리인 우다방 일대를 지나 안쪽 골목으로 들어서자, 1층 점포마저 문을 닫은 곳이 적지 않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테마거리도 시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듯 고요하기만 했다.

실제 지난 1분기 기준, 충장로 일대 중

대형 상가 공실률은 26.4%에 달했다. 이마저도 상인들과 자치구가 반값 임대료 협약 등 자구책을 펼쳐 3분기 연속 반등한 수치다.

같은 날 찾은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일대는 더욱 침체된 모습이었다. 실내 포장마차와 주점은 물론 카페와 외식 브랜드 업체까지 줄줄이 문을 닫았고, 일부 건물주는 아예 건물 자체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장기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듯 유리창 너머로는 먼지만 소복이 쌓여 있었다. 이곳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8.0%로 광주에서 가장 높다.

드문드문 문을 연 가게들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다. 손님 없는 가게의 주인들은 TV 화면만 바라보며, 쓰린 속을 태우는 기색이 역력했다.

25년째 중식주점을 운영 중인 박금숙(68)씨는 “알바를 4명이나 쓰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다.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든 것 같다”며 “젊은 사람도 줄고, 지역에 돈을 벌 일자리도 없으니, 상권이 살아날 턱이 없느냐”고 토로했다.

신시가지만 서구 상무지구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유흥업소가 밀집한 일부 구역을 제외하면, 상무중앙로를 따라 이어지는 오피스 밀집 지역의 길목마다 빈 점포가 눈에 들어왔다. 공실률은 12.7%로 여전히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간판만 남은 채 영업을 멈춘 상가,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은 유리창, 사람이 없는 거리는 이제 더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코로나 당시 받은 긴급대출 상환 압박에 장사가 되지 않아도 ‘버티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은 더욱 암울하다.

이 같은 상권 붕괴의 원인으로는 온라인 소비 확산, 업종 포화,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지목되지만, 무엇보다도 대형 상권을 지탱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점이 본질적이다. ▶ 2면에 계속

윤준명 기자



전남 나주시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본격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될 왕곡면 덕산리 일원 123만9722㎡

(약 38만평). 산단 내에는 에너지산업, 신소재 나노융합소재산업,

친환경 IT산업 등을 유치한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와 전남개발공사로, 오는 2032년까지 263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 관련기사 12면

김양배 기자

李 대통령, 오늘 첫 기자회견... ‘민생·경제’ 방점

‘타운홀 미팅’ 형태 문답 진행 모두발언 원고 수정 거듭 ‘심혈’

이재명(사진) 대통령은 취임 30일째가 되는 3일 오전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달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는 첫 자리이다.

‘빅 이벤트’ 성 행사인 만큼 이 대통령은 2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대국민 메시지를 다듬는 데 집중했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준비에 매진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1시간 30분가량 예정한 회견에서 ‘대국민 보고’ 형식의 모두발언에 이어 인수위원회 없이 숨 가쁘게 이어온 30일간의 국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원고에 대한 직접 수정을 거듭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민생·경제 정책 행보와 함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방문 성과, 미국과의 통상 협상 상황, 마무리 수순인 내각 구성 결과 등 굵직한 현안을 중심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타운홀 미팅’ 형태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내놓는 식으로 진행된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비롯해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 예산 집행 계획이나, 급등세를 이어온 수도권 부동산 문제와 대출 규제 등이 화제로 오를 수 있다.

최근 주가지수가 고공 행진 중인 만큼 자본시장 활성화와 상법 개정을 통한 시장 공정화 문제, ‘코스피 5000’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도 언급될 수 있다.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선 한미정상회담 계획이나, 협상 시한이 닷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상황을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 4강(미일중러) 외교 구상 등에 대한 문답이 이뤄질 수 있다. 대북 관계 설정 문제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선욱 기자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에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엔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